

전통의 새로운 가치! Creative KIOM

스마트한 한의학 세상,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만들어갑니다.



ISSN 2234-4349

## 한의학 야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달려온 20년,  
전통의학과 현대과학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인류가 꿈꾸는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2014 Autumn Vol. 22



2014 AUTUMN 1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305-8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전민동 461-24) Tel. 042) 861-1994 [www.kiom.re.kr](http://www.kiom.re.k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CONTENTS

2014 AUTUMN VOL.22

## • SPECIAL

스마트 시대

- 10 한의학 세상과 통하다 1  
‘나만의 주치의’ 시대를 여는 모바일 헬스케어
- 12 한의학 세상과 통하다 2  
전통의학 정보 스마트폰서 한방에 바로바로
- 16 Interview  
다채로운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영화음악가 심현정

## • DEEP

깊이 읽기

- 20 Topic  
한의학연 개원 20주년 기념 ‘한의학 미래 R&D컨퍼런스’ 개최
- 22 KIOM Opinion  
20년 단단한 기반으로 한의학 미래 선도한다
- 26 R&D Report ①  
한약자원 국내 생산 인프라 구축한다, 문병철 책임연구원
- 28 R&D Report ②  
한의학연 국제협력사업 추진, 서남매를 아시나요?, 서명수 선임연구원·서하림 연구원
- 30 R&D Report ③  
한의학, 발효과학을 만나다, 김태수 책임연구원

## • WIDE

넓게 보기

- 32 힐링에 머물다  
산과 바다, 무한의 매력을 가진 그 곳, 전북 부안
- 38 재미있는 한의학 상식  
한의학 상식 아는 만큼 보인다
- 40 역사에서 배우다  
자연을 담은 선조들의 색, 천연염색
- 42 교수들의 다이어리  
가을, 피부에 수분을 주세요

## • FRESH

새롭게 듣기

- 46 Zoom in KIOM ①  
KIOM 낙도(落島)사랑 한방의료봉사
- 48 Zoom in KIOM ②  
체험! 약용식물의 현장,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
- 49 Zoom in KIOM ③  
전국 어린이 한의학 퀴즈대회 ‘찾아라! 어린이 하준’
- 50 Zoom in KIOM ④  
한의학, 세계무대 가능성 있다! 2014 ‘KIOM 글로벌원대’ 성과보고회
- 51 Zoom in KIOM ⑤  
한의학대생, 한의학 R&D 프로세스 체험 ‘KIOM 리서치 캠프’
- 52 Now In KIOM
- 54 KIOM 우체통

표지설명 : KIOM 2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연구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직원들의 모습을 표지에 담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e이거] 2014 Autumn Vol.22 www.kiom.re.kr  
발행일 2014년 10월 29일(통권 제21권) 발행인 송미영 발행처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진민동461-24)  
편집실 한국한의학연구원 홍보협력팀 Tel. 042-868-9274  
편집디자인 제작 (주)중에드 Tel. 042-624-2009

〈한의학e이거〉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의학e이거〉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주년 축하 메시지

“ 최고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송미영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1994년 10월 서울 청담동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해 23명의 인력, 그리고 13억 원의 예산으로 출발한 우리 연구원은, 지금은 예산규모 500억 원을 돌파했고, 정규직 150여 명을 포함한 300여 명의 다학제 인력이 한의학을 주제로 불철주야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한의학 분야 국내 최대,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주신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 그리고 한의계 등 모든 분들께 연구원 모든 구성원을 대신해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20년 동안 침 치료의 효과와 기전 연구, 한약의 안전성과 한약자원 확보, 한의학 신약 연구와 사상체질을 포함한 진단기기 연구, 한의학 표준화 연구와 동의보감 영역 사업 등의 연구를 통해, 한의학 연구 분야 대부분에서 선구자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은 해마다 100여 편 안팎의 SCI 및 SCIE급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한의계에서는 특허와 기술이전 등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20돌은 남다른니다. 서울 청담동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있어 오늘은 더욱 감회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걸음 더 전진하여 마침내 지난해에는 기관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영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전통의학협력센터 지정, 글로벌 한의학의 기반이 되는 한의기술표준센터 완공, 그리고 내년에는 대구 한의기술융용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방 네트워크 시대를 열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20년 동안의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내에, 예산 1,000억원 시대, 정규 연구 인력 300명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한의학 진단과 처방, 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보건 향상, 나아가 세계화를 통해 국가 산업에 기여하는 최고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연구원의 성장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직무대행 송미영

*Song Miyoung*



한국한의학연구원 20년 주요 역사 이슈 & 연구성과



**1994**  
1994.10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소식  
1994.10 홍원식 초대소장 개소사



**1997**  
1997.08 제2대 신만규 소장 취임  
1997.11 한국한의학연구원 승격



**2000**  
2000.10 제3대 고병희 원장 취임

**2002**  
2002.06 대전청사 기공식



**2003**  
2003.10 제4대 이형주 원장 취임



**2004**  
2004.02 대전청사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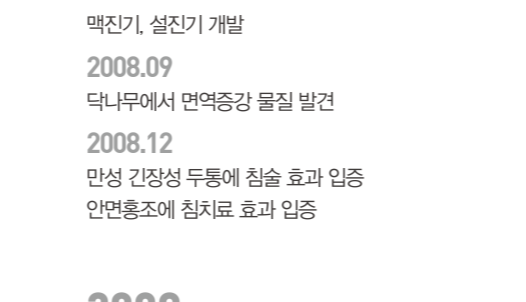
**2005**  
2005.01 한약재에서 당뇨병 예방 치료물질 발견

**2006**  
2006.10 제5대 이형주 원장 취임

**2007**  
2007.06 전통의학정보포털 'OASIS' 개발·서비스  
2007.09 혈액응고 억제효과 뛰어난 복합한약조성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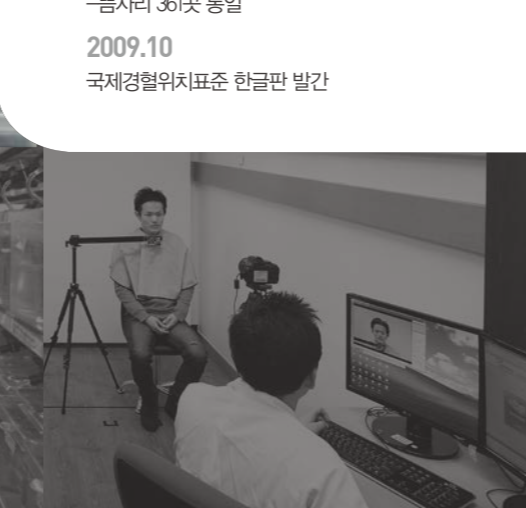
**2008**  
2008.08 제6대 김기옥 원장 취임

2008.01 침의 진통 효과, 국제 권위학술지 Pain에 발표  
2008.03 '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 11종 12책 발간  
2008.04 맥진기, 설진기 개발  
2008.09 닥나무에서 연역증강 물질 발견  
2008.12 만성 긴장성 두통에 침술 효과 입증  
안면홍조에 침치료 효과 입증



**2009**  
2009.07 동양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09.03 디지털 설진기 개발  
계피, 암 억제와 항암면역 증진효과 규명  
2009.04 사상체질 진단틀 개발  
2009.04 경혈 국제표준안 소개: 세계인의 침-뜸자리 361곳 통일  
2009.10 국제경혈위치표준 한글판 발간



**2010**  
2010.01 신종플루 치료용 한약제제 개발  
2010.04 가짜 한약재 유통 막는 유전자 감별기술 개발  
2010.08 당뇨병성 망막증 억제물질 확인  
2010.10 천식환자 침 치료 효과 입증  
2010.12 침으로 코카인 중독 치료 가능성 확인  
한의학 온톨로지 개발

**2011**  
2011.02 WHO 전통의학협력센터지정  
2011.08 제7대 최승훈 원장 취임

2011.01 KOM-C 기반 한약제제 사료 첨가제 개발  
한국한의학연구감 '발간'  
2011.03 다빈도 한약처방 안전성-유효성 검증  
2011.07 동양보감 내경편-외형편 영역서 발간  
동양보감 영역서 발간  
2011.08 백지 추출물로 천식 개선 효과 증명  
2011.11 루게릭병 동물에서 침 치료 효과 확인  
2011.12 KS 제정 일화용 멸균호침, 피내침, 아침 등



2012.01 사상체질별 대표얼굴 공개  
2012.02 '한약기원사전' 개발·서비스  
2012.07 육미자황탕, 전립선비대증 치료 효과 확인  
2012.09 독성 없는 비만 치료물질 기술이전  
2012.09 아토피 치료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개발  
2012.12 통합의학연구 국제학술지(IMR)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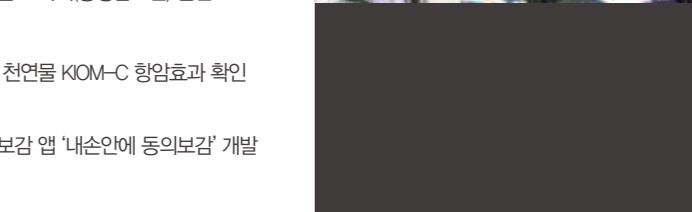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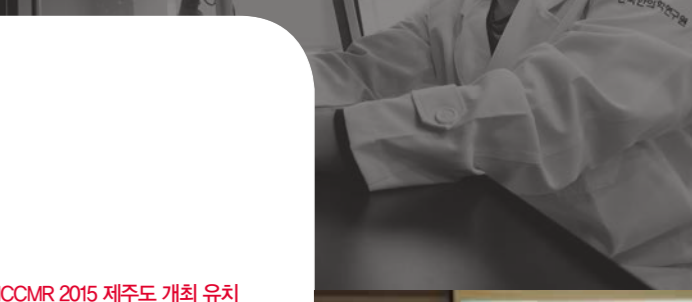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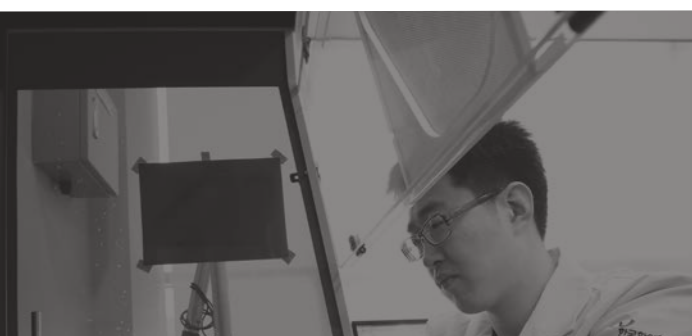
**2012**  
2012.05 한의기술표준센터 출범  
2012.08 향약표본관 개관

2012.01 사상체질별 대표얼굴 공개  
2012.02 '한약기원사전' 개발·서비스  
2012.07 육미자황탕, 전립선비대증 치료 효과 확인  
2012.09 독성 없는 비만 치료물질 기술이전  
2012.09 아토피 치료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개발  
2012.12 통합의학연구 국제학술지(IMR) 창간

**2013**  
2013.04 ICCMR 2015 제주도 개최 유치  
2013.08 정부출연연 기관평가 1위  
2013.09 대구한의기술 응용센터 기공식

2013.01 통합 체질 건강 진단·자극 시스템 개발  
2013.03 알레르기 비염 침치료 효과 확인  
2013.04 안구건조증 한방 침 치료 효과 확인  
체질정보은행 홈페이지 구축  
2013.09 한의학 정책 전문 저널 '한의학정책' 발간  
한의학 지식검색 '한의 시맨틱' 앱 개발  
2013.11 골다공증 치료용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H-RT 개발

**2014**  
2014.01 민간요법 발굴 조사서(충청남도편) 발간  
2014.07 한약재 추출 천연물 KOM-C 항암효과 확인  
2014.08 국영문 동양보감 앱 '내손안에 동양보감' 개발





국한의학연구원 20주년  
KIOM 20th Anniversary

국한의학연구원은  
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명을 안고 설립되었습니다.  
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연구를 수행하며  
계 전통의학분야 대표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KIOM.  
번 <한의학e아기> 가을호에서는  
국한의학연구원 20년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 Lsmart

사람들의 요구에 앞서 트렌드를 주도하며 발전해 온 스마트 기술,  
이제 디지털 시대를 넘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편리해졌을까.  
빠르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스마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 사회는 경제, 문화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룩했다. 이제는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 단순히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열망은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탄생시켜왔고, 그 가운데는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트렌드가 있다.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에 대해 한의학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2014년 <한의학e아기>는 끊임없이 시대와 소통하며 성장해온 한의학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 ‘나만의 주치의’ 시대를 여는 모바일 헬스케어

40대 초반의 직장인 김모씨.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잦은 야근과 회식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소위 ‘몸짱’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샀던 그였지만, 팍팍한 직장생활에 평소 좋아하던 운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체중이 10kg 이상 불었고, 임신부처럼 배가 나오는 등 전형적인 ‘아저씨 몸매’로 전락한 지 오래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지방간과 콜레스테롤이 기준치 이상을 넘어섰고, 급기야 초기 고혈압 판정을 받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혈압도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 ● 새로운 의료혁명의 시대가 열린다

김모씨는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매일 자신이 해야 할 운동 목표량을 설정한 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기 시작했다. 목표한 운동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스마트폰 앱에서 경고음이 울려, 걸어서 출퇴근을 하거나 회사 내 이동 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는 등 스마트폰 덕분에 매일매일 자신의 운동량을 체크해 가며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이 ‘나만의 주치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 평소의 활동량과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장착된 각종 센서로 혈당, 혈압, 심전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건강 관련 데이터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돼 의료진과 전문가들에게 보내져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원격진단 및 예방, 진료도 가능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은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구글은 혈당을 측정해 전송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애플은 스마트시계인 ‘아이워치’를 이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삼성 역시 신수종 사업으로 의료가기, 바이오와 IT 및 모바일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융합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에 혈압, 혈당, 심박수 등 다양한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센서를 부착해 사용자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라이프 로그(Life Log) 데이터’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건강정보 등을 담고 있어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신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파악해 주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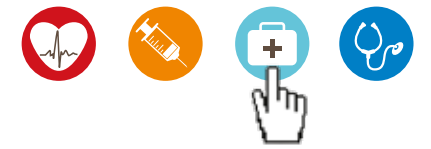
## ● 다양한 진단기술을 선보인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인트 벤처기업인 ‘헬스커넥트’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온’을 개발해 선보였다. 헬스온은 모바일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스마트폰 앱에 자신의 신체 정보 등을 입력하면 개인의 운동량과 식사량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이용자는 매일 자신이 한 운동과 먹는 음식 등을 입력하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걸음수는 스마트폰으로 측정되고, 손목이나 허리에 착용하는 활동량 측정기와 연동하면 다양한 운동량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헬스온 서비스를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모바일 헬스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카라그푸 인도공과대학은

특수한 조명과 고해상도 렌즈를 스마트폰에 연결해 환자의 피부를 촬영하고,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통해 촬영된 이미지를 클라우드 서버에 보내면 이를 자동으로 분석해 증상 진단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피부암 진단 솔루션인 ‘클립오캠-더마(ClipOCam-Derma)’를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이나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의료진의 신속한 진단을 내리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소량의 혈액이나 땀, 침 등 타액 속의 성분을 스마트폰을 통해 분석해 진단을 내리는 기술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콜레스테롤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손등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손의 흔들림 양과 빈도를 측정해 파킨슨병을 파악하는 기술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진단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양방 위주에 한정돼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한의학 분야로 적용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직장인이 사내에 설치된 한의학 기반의 소형 진단기기로 맥, 안색 등 한의학적 생체정보를 분석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스마트폰으로 맞춤형 한의학 건강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는 ‘맞춤형 생활습관 관리시스템’을 앱과 관련 기기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 전통의학 정보 스마트폰에서

## 한방에 바로바로

정보의 홍수 시대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달·보급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기도 한다. 전통의학도 IT기술과의 접목이 활발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지식검색부터, 한약기원, 한의학술논문, 동의보감 등 한의학 관련 데이터와 고서 등을 모바일과 웹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랜 기간 전해져 온 방대한 양의 전통의학 정보들이 IT기술과 접목되면서 첨단 정보로 재탄생한 것이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누구나 웹과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전통의학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 ‘동의보감’ 내 손안에 있소이다 ‘내손안에 동의보감’ 앱

우리민족 최고 의서이자 한의학 대표 브랜드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의보감이 앱으로 개발됐다. 400년 전 25권 25책으로 발간된 동의보감이 스마트폰 앱으로 손안에 들어온 것.

‘내손안에 동의보감’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으로 구성된 동의보감의 한자원문과 함께 국역문, 영역문까지 담고 있다. 국역문은 한의학연구이 동의보감출판사에서 간행한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교열작업을 통해 제작됐고, 영역문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2013년에 완성한 동의보감 영역본을 바탕으로 완성됐다.

사용법은 한자원문, 국역문, 영역문에 대한 단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결과는 표제어와 본문으로 구분되어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 본초, 경혈 등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또 북마크 기능을 통해 해당 구절을 나만의 내용으로 재구성 할 수 있고 메모기능으로 본문에 글을 남겨놓을 수도 있다.

이처럼 ‘내손안에 동의보감’은 사용이 쉽고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일반인은 물론 한의학 전공자, 임상교육현장, 고전문헌번역, 논문작성 등에서 전문가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담당자 한마디  
박상영\_한의학지식문화연구그룹 선임연구원  
“앱 개발에 한의계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추후 웹 버전 개발과 주요 한의서, 경험방까지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  
iOS(애플앱스토어)에서  
‘동의보감’ 검색후 설치



### • 한의학 지식검색, 한방에 해결한다. ‘한의 시맨틱 검색’ 앱/웹서비스

‘한의 시맨틱 검색’ 앱은 한 번의 검색으로 약재, 처방, 효능, 병증, 변증, 증상에 대해 검증된 한의학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검색포털에서 한약재인 ‘감초’를 검색하면 관련된 지식, 뉴스, 광고, 블로그,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뒤섞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데, ‘한의 시맨틱 검색’ 앱에서 ‘감초’를 검색하면 전국 한의대에서 활용되는 교재에서 추출된 감초의 기원과 효능, 약용 부위, 성미를 포함한 10가지 기본 정보와 참조하는 처방·병증

▶ 개발담당자 한마디  
김상균\_정보개발운영그룹 선임연구원  
“한의 시맨틱 검색 앱이 인터넷에서 난무하는 잘못된 한의학 정보들 사이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등 감소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 ‘십전대보탕’을 검색하면 구성약재, 효능 등 처방의 기본 정보는 물론 들어간 한약재와 병증 정보 그리고 십전대보탕이 수록된 한의학 문헌까지 정리해서 보여준다.

이 앱은 한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한의학 관련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톨로지 기반 한의학 지능형 정보체계 연구’를 통해 개발됐다. 온톨로지 지식을 이용하는 시맨틱(의미기반) 검색은 일반 검색엔진에서의 키워드 검색보다 한의학의 약재, 처방, 병증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하는 데 수월하다.

▶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  
iOS(애플앱스토어)에서 ‘한의학시맨틱’  
검색 후 설치

PC버전 :  
<http://cis.kiom.re.kr/semantic>

한글을 비롯해 한자, 영문, 한어병음, 일문(가타카나)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한약재 ‘갈근’의 경우 한글 ‘침’, 한자 ‘葛根’, 영문명 ‘Pueraria’, 한어병음 ‘Gegen’, 일문 ‘カッコン’로도 검색할 수 있다.

또 표제어 뿐 아니라 모든 내용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열약’이라고 검색하면 청열약의 효능(열을 내리게 하는 효능)을 가진 한약재 38개가 한 번에 추려진다. 마찬가지로 ‘감기’나 ‘고혈압’을 검색하면 주치에 감기와 고혈압이 포함된 한약재가 각각 33건, 49건 검색된다.



▶ **개발담당자 한마디**  
**최고야**\_한약자원그룹 선임연구원  
“기존 한약기원사전 앱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검색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높인 만큼 한의학 관련 연구자, 전공자뿐 아니라 평소 한약재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쉽게 찾아보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약기원사전**  
<http://boncho.kiom.re.kr/codex>

# OASIS


## 한의학논문 검색부터 분석, 통계까지

‘오아시스’(OASIS,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웹서비스

‘오아시스’는 국내 유일의 전통의학 정보포털 서비스로 관련 연구자와 대중에게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의학술논문 26,200여 건, 한의연구보고서 2,840여 건, 한의약통계 410여 건, 참고문헌 48만 여 건에 대한 원문 검색과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통계분석서비스는 논문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스크랩과 검색히스토리가 가능한 ‘마이 오아시스’기능 추가로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 한의학연이 ‘표준한방처방 EBM 구축사업’을 통해 확인된 다빈도 처방 30종 한약처방의 안전성, 유효성,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아시스는 한의학연 연구결과를 한의학 연구자와 의료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모바일 버전과, 영문 서비스도 제공되며 영문 오아시스는 외국인의 한의학 정보 접근성을 위해 한의학술논문의 서지정보 등을 영문으로 제공한다. 

▶ **개발담당자 한마디**  
**예상준**\_정보개발운영그룹 선임연구원  
“한의학 전공자, 관련 연구자, 외국 연구자들의 사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서양의학 수준에 버금가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KIOM herbarium

## 한약재정보 언제 · 어디서나 한눈에 ‘한약기원사전’ 웹서비스

‘한약기원사전’은 한약재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웹서비스다. 한약재의 주된 사용국인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의 공정서(약전)에 수록된 한약(생약)의 기원 내용을 총망라해 정리했다.

사용자는 한약기원사전을 통해 한약재의 약명, 이명, 생약명, 영문명, 기원종, 약용부위, 채취방법, 제법, 지표물질 함량 기준, 효능,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  
심현정  
영화음악가

## 다채로운 음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늦더위가 가을의 걸음을 붙잡는다. 다시 여름이 돌아온 듯 화창한 날씨에 홍대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젊음의 열기까지 더해져 마음을 설레게 한다.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온 것만 같은 분위기의 거리, 이곳에 심현정 감독의 작업실이 있다. 영화에 생동감을 입히고 감성을 불어넣는 음악이 가진 매력은 가을의 날씨처럼 다채롭다.

### ●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꿈꾸다

"성당에서 오르간을 배우면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음악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오르간과로 진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기시험을 피아노로 봐야했어요. 오르간을 치는 동안에는 피아노에서 손을 뗄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음악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심 감독은 연주 실력보다 음악성을

중요시했던 작곡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작곡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음을 악보에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는데 테스트해본 결과 그녀는 뛰어난 청감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내재된 '절대음감'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음악가로서의 첫발을 내딛은 그녀는 미국 유학길에서 운명처럼 영화음악에 빠져들게 된다. 학부시절 졸업작품연구회에서 현대음악곡을 발표했었던 그녀는 음악회에

찾아와준 지인들의 어렵다는 반응을 접하면서 기왕에 고생하는 거 친구들이, 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하자고 생각했다. 영화음악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즐겨 들을 수 있는 음악분야였다.

"특별히 영화에 조예가 깊다거나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갔던 학교가 영화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니다. 우연히 영화음악



“우리는 두 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동안 그 인물들을 만나지만, 사실 그 인물들은 우리처럼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의미를 잘 파악해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과제가 영상에다가 음악을 입히는 것이었어요. 발표를 하다가 영화음악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친구들과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화음악은 심 감독이 하고 싶었던 대중이 편안히 들을 수 있으며 또 소통할 수 있는 분야였다. 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심 감독이 돌아왔을 때는 한국영화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였다. 클래식 음악과 함께 미국에서 영화 음악을 전공하고 온 심 감독은 전문성을 지닌 인재로서 영화계에 입문할 수 있었다.

영화 ‘올드보이’는 심 감독이 오랜 시간 연마해왔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작품이자 그녀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첫 번째 작품이다. 작업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흥행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심 감독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올드보이’를 하기 전에 두 작품에 더 참여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영화계에서 일하다보니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드보이’가 잘 안되면 영화계를 떠나려고 했어요.” 심 감독은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덕분에 영화계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다며 웃는다.

힘든 시기도 있었다. 영화 ‘아저씨’의 작업을 하기 전까지 한 동안 영화일이 들어오지 않아 템플스테이를 떠나기도 했다. 영화음악가라는 직업이 과연 자신이 가야할 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당시에 ‘눈물시리즈’가 들어와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위안을 삼았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영화일이 안 들어오자 스스로 이 직업과 내가 잘 안 맞는 건 아닌지, 잘 못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3년 만에 ‘아저씨’라는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올드보이’로 인정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일이

이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저씨’가 흥행에 성공하고 상을 받게 되면서 심 감독은 그제야 영화음악이 자신의 길임을 확신 할 수 있었다.

### ● 창의성의 비결, 집중과 다양성

“저도 영감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영감을 떠올리고, 곡을 쓰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서 그 내용에 어울리는 음악을 떠올려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영화에 참여해 각기 다른 느낌의 곡을 쓰기 위한 영감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냐는 질문에 심 감독은 집중이라고 대답한다. “음악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지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여기저기에서 영감을 받아 그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여행 역시 그녀가 영감을 얻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여행을 가면 그 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감각들을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한다.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독일이나 베트남이 기억에 남아요. 같은 아시아라고 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곳곳마다 다른 문화가 있어 색다른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녔었던 여행지 중에서는 베트남의 후예가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이 왕의 무덤, 옛 유적이 있는 곳으로 전통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음악작업을 할 때 심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집중’이다. 지금까지 좋은 영화음악을 창작해낼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집중에 있다. 영화에서 보면 연기로만 순간의 감정들을 모두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인물들의 감정, 또 관객들이 느껴야할 감정을 영상만으로 표현하기 힘

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감독과 잘 소통해서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음악으로 담아낸다. “우리는 두 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동안 그 인물들을 만나지만, 사실 그 인물들은 우리처럼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인물들이 하는 대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해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의 다양성은 심 감독이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만약 피아노만 했다면 아무리 음악을 좋아했다고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의 경우 비록 영화에서 요구하는 사운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만큼은 제가 다양한 악기로 하고 싶은 것을 구사할 수 있고, 또 영화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도 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어 작업을 하면서 항상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심 감독은 평소 다양함을 즐기는 성격이라 영화음악 작업을 하면서는 지루함을 느낀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인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내년 상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은밀한 유혹’의 작업이 한창인 심 감독. 원작이 여류작가가 쓴 여성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섬세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한다.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는 심현정 감독. 이번 영화를 통해 그녀가 새롭게 보여줄 음악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기다려진다. 🌈

### PROFILE

뉴욕대학교 대학원 석사  
2010년 제6회 대한민국대학영화제 음악상  
2010년 제8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음악상  
2007년 제15회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음악상  
2004년 제3회 대한민국영화대상 음악상



누크소년 OST '나의 왕자님'



올드보이 OST 'Last waltz'






한국의학연구원 20주년  
KIOM 20th Anniversary

## 한의학연 개원 20주년 기념 ‘한의학 미래 R&D 컨퍼런스’ 개최

2014년은 한국의학연구원이 스무 살, 성년이 되는 해이다. 한의학연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한의학의 R&D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10월 8일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송미영 선임연구본부장(원장 직무대행)의 기념사와 전임 원장 회고담, 2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그리고 우수한 업무성과로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이어 ‘한국의학연구원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송미영 원장 직무대행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의료, 한약, 문화·정보 분야의 각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별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한의학 R&D 전반에 걸쳐 연구현황,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와 함께 구체적인 한의학 미래 R&D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송미영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의학 연구개발 전 분야에 걸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국가 한의학 R&D 거점 역할을 담당해 온 한의학연이 앞으로 한의학 치료기술 발전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한의학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들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20년 단단한 기반으로

## 한의학 미래 선도한다



KIOM



올해로 성년을 맞은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약관의 나이지만 그동안 달려온 활약상은 단단한 성년의 모습이다. 선조의 지혜와 경험으로 전해오던 우리나라의 전통의학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표준화하며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의학은 한반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오랜 역사를 가지며 다양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의료기술이자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근거중심 의학이 부각되면서 한의학의 위상이 위축되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한의학연의 출범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한의학의 체계적 연구와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게 되면서 연구기반의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 설립이 시급했다.

이와 함께 1993년 '한약 분쟁'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한의학연은 1994년 연구기관으로 출발을 알린다. 당시 한의학계의 위기라 할 정도로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 첫발을 내디딘 한의학연은 기본에 충실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며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역량을 키워 갔다.

지난 20년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한의학연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 ● 1994년, 한의학 발전 위한 기틀을 마련하다.

각계에서는 한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주장했지만 진행은 더뎠다. 우여곡절 끝에 1994년 3월 한국한의학연구소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연구소 설립이 속도를 냈다.

같은 해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에 개소한 한국한의학연구소. 3부 7실 1과로 출범한 한의학연은 작은 규모와 부족한 연구비 속에서도 열정적인 연구로 한의학의 중요성을 알리며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그리고 1997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의학육성발전계획을 발표한다. 한국한의학연구소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승격되면서 임상연구센터와 국제협력부 설치, 인원 확충 등 기관이 확대된다.

이후 한의학연의 강령을 마련하고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한방의료연구지원 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한다. 장기 로드맵 수립과 함께 한의학연은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한다.

2000년 들어 KIOM의 연구개발 방향은 전환점을 맞는다. 대내외적으로 KIOM의 사업방향을 한의약을 이용한 산업화와 실용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작 된 것. 그러나 개원 초기부터 진행해 온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 한의약 연구, 한의학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의학연, 한의학 과학화와 표준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우수 연구 성과 바탕으로  
세계 전통의학 선진 연구기관 도약할 것

연구 활동이 적은 예산과 열악한 실험 공간 등 한정된 조건 속에서 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 하지만 이때의 연구들은 향후 연구의 기반이 되며 현재까지 주요 연구 사업의 근간으로 이어진다.

2004년 대전청사 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의학연은 매년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며 성장을 거듭한다. 대전에 독립적인 연구거점을 마련한 한의학연은 새로운 비전과 경영목표 등 중장기 전략을 통해 연구원이 독자성과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새로운 이정표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

2006년 한의학연은 과학기술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연구 기조도 산업화 연구에서 창의적 원천기술 개발로 바뀐다. 예산도 200억 원 이상 확보하고 인력도 100명이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한의학 핵심 연구기관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

### ● 2004년, 도약과 발전의 시대, 각 연구 분야 성과 속속

본격적인 연구 시설을 확보한 한의학연은 이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약과 침, 문헌, 진단, 정보·인프라, 표준화 등 각 분야에서 질적, 양적 성장을 보이며 눈부신 성과를 기록한다.

한약 분야에서는 2005년 한약재에서 당뇨병 예방 치료물질 발굴을 시작으로 덕나무에서 면역증강 물질 발견, 신종플루 치료용 한약제제 개발, 가짜

한약재 유통을 막는 유전자 감별 기술 등을 개발하며 명실공히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어 2011년에는 한약재 백지 추출물로 천식 개선 효과 증명, 2012년에는 현대인의 불치병이라 불리는 아토피 치료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개발, 독성 없는 비만 치료물질 기술이전, 육미지황당의 전립선비대증 치료효과 확인, 2013년 골다공증 치료용 천연물 후보물질 발굴까지 성공한다.

침구 분야에서는 만성 긴장성 두통, 안면홍조, 천식환자, 루게릭병 동물, 알레르기 비염, 안구건조증 등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서 침 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2012년부터는 하버드 의대 마르티노스센터와 침 치료의 효과와 기전을 밝히는 공동 연구에 들어갔다.

문헌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 발간,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게 된 2009년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의보감 영역서 발간, 국영문 동의보감 앱 '내손안에 동의보감' 개발 등 글로벌 무대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다.

또 진단 분야에서는 디지털 설진기·맥진기 개발, 사상체질진단틀 개발, 통합 체질 건강 진단·자극 시스템 개발 등 첨단 진단기기 개발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성큼 앞당겼으며, 정보 분야에서도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한의학 온톨로지 개발, 전통의학정보포털 'OASIS' 개발 및 모바일·영문 서비스,



## Create the new from the past

한의학이 첨단과학과 만나 세계인의 전통의학으로 거듭납니다

**20**  
KIOM 20th Anniversary

‘한약기원사전’ 모바일·웹 서비스, ‘한의 시맨틱 검색’ 앱 등을 개발하며 국민과 전문가들이 한의학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표준화 분야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 361개 국제 경혈위치 표준, 일회용 멸균초침, 피내침, 이침 등 KS 제정, 맥진기, 약탕기, 뜸 등 국제표준화 채택, WHO 표준화 활동 등이 이루어졌고, 2012년에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자 한의학 표준화 연구의 거점이 될 한의기술표준센터가 완공, 가동되었다. 이로써 한의학의 표준화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한의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 밖에 한국한의학약감 발간, 표준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발간, 한의약 정책 전문 저널 ‘한의정책’ 발간, 통합의학연구 국제학술지(IMR) 창간 등 한의학 전문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 2011년, 온고창신(溫故創新), 눈부신 미래로 향하다.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기치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한의학연은 2011년 이후 세계 전통의학을 주도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갔다.

2011년에는 WHO 전통의학협력센터로 지정되며 한의학의 세계화와 위상 강화의 기반을 단단히 하고, 2012년에는 전통의학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 기술위원회인 ISO/TC249 제3차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한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보완대체의학학회 ICCMR의 2015년 개최지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2013년에는 대구 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서게 될 ‘한의 기술융합센터’가 201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 외에 우수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KIOM HRD 체계 확립, 소통과 신뢰의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한 전 직원 간담회 ‘KIOM 문사연’, 원내 한방진료실 개소,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등을 시행하고, 그동안 내적으로 축적된 역량을 동력으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온고창신(溫故創新)을 선포한다. 이를 계기로 한의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인류의 건강한 삶에 공헌하는 미션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또한 과학문화 확산과 사회 기여의 확대에도 공을 들였다. 한의학 퀴즈대회 ‘찾아라! 어린이 허준’, 도심 속 약용식물 탐사 ‘KIOM 분초탐사대’, 한의학연 온라인 홍보대사 ‘KIOM 블로그 기자단’은 한의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며 참여를 이끌어 냈다. 한의학 학부생 연구 지원프로젝트 ‘KIOM URP’와 해외 전통의학 연구기관 탐방 ‘KIOM 글로벌원정대’, 한의학 R&D 체험 캠프 ‘KIOM 리서치캠프’를 통해 대학생들의 창의적 융합 인재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내실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성장을 거듭한 한의학연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기관 중 1위에 선정되며 개원 이래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 낸다. 높은 경영목표 달성과 연구 성과 보급, 우수인력 발굴과 육성 등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고 결실을 맺은 것. ‘2013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는 기관, 단체, 개인 부문에서 각각 국무총리 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유공자 포상에서도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과 개인부문 포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수상이 이뤄졌다.

### ● 한의학연 2030 비전, 한의학 새로운 역사 연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2014년 KIOM은 인원 151명, 예산 546억 등 규모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20년간의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비상을 준비 중인 한의학연은 초고령화 시대와 장수시대 도래에 발맞춘 연구와 실용화를 통해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한의학 세계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통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의학의 이론을 현대 과학적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한의 의료기술의 효능 및 안전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2030년까지 진행하며 한의학 과학화에 대한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한의학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표준화 역량 강화에도 앞장선다. 의료서비스, 체질진단, 의료정보 분야 등에서 표준화를 통해 지식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기술 개발, 국내외 표준 확보,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밑거름을 다진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우리나라 역시 ‘한의학 세계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내세울 만큼 한의학의 세계화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의학연은 의료·문화·교육·산업이 융합된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세워 진단, 침구, 한약, 인프라(문화·정보·소재) 분야에서 점진적인 성과를 거둘 계획이다.

한의학연이 달려온 20년은 앞으로 펼쳐질 한의학 미래의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이제 그간의 노력들이 우수 연구 성과로, 기술의 실용화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중요한 시점에 섰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세계 전통의학 선진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 한약자원 국내생산 인프라 구축한다

“ ‘들과 산에 자라는 풀의 셀룰로스(cellulose)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식량문제나 에너지문제는 사라질 거야.’ 대학시절 선배가 건넨 한마디 말에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됐죠. 졸업을 앞두고 식품가공학(발효공학)에서 식물분자생물학으로 바꿔 석 ·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

문병철 · 한약자원그룹 책임연구원

## ● 한약자원 기원정립, 국내 생산 인프라 구축할 것

분자생물학은 세포 내에서 DNA나 단백질 효소들의 상호간 역할을 밝히며 분자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식품분자생물학을 전공한 문병철 박사는 생명현상의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이용해 과학적인 한약재 감별법 개발을 위한 유전자 마커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한약재는 중국과 일본의 약전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유 자원으로 정의된 것이 많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과 기후대가 비슷하고 공동으로 자생하는 식물들이 많아 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판별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같은 속의 식물 종이라 하더라도 효능에서 큰 차이를 보여 가격대도 다르게 형성되는데, 전문가도 육안으로는 약재를 구별하기 어렵다보니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이에 문 박사를 비롯한 연구팀이 2007년부터 ‘유전자감별 기술’ 연구를 진행한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각 한약재의 게놈 유전자를 분석해 종별로 특이성을 갖는 염기서열을 찾은 후 위품을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용 복합 primer 세트(DNA의 특정 부위만 증폭하게 하는 인자)를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감별에 활용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수오와 백수오 유사품 감별용 유전자 마커를 2010년에 개발했습니다. 하수오(적하수오)와 백수오(백하수오)의 이름이 비슷하고 백수오와 이엽우피소가 한약재 형태가 비슷하게 생겨 혼란을 주는데 실제 약효도 다르고 무엇보다 가격차가 큼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증폭시켜 증폭된 DNA의 크기와 수를 이용해 하수오와 백수오, 이엽우피소를 한꺼번에 식별하는 마커를 개발했습니다.”

## K-HERB PROJECT

현재 그는 올해 시작된 ‘안정적 한약자원 확보기술 개발사업’에서 ‘한약자원 국내 생산 기반 기술 개발’ 분야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일명 ‘K-허브 프로젝트(Herb Project)’다. 2012년부터 준비를 시작한 이 과정은 국내 한약자원의 조사 · 발굴, ICT 기술 융합을 통한 대체 한약자원 발굴, 한약재의 국내 대규모 재배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약재의 안정적 확보 방법을 개발하여 한의약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로 2년의 준비 끝에 올해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기후변화,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으로 각국의 생물 주권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기존 해외에서 수입되는 약재를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국내자원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기후대가 다른 국내에서 재배가 가능하도록 재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체계적으로 국내자원을 조사 · 발굴하고 대량 재배가 가능토록 육묘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우리 고유자원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재배 ·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우수 품종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약자원은 식물시료부터 채취하고 정보를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늦게 시작돼 축적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 그는 “한약자원은 중국과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로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유전자 감별과 관련해서 중국과 협력방안을 조금씩 논의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꿈을 묻는 질문에 문 박사는 ‘선비 같은 연구자가 되고 싶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한발 한발 내딛으며 자신의 연구 궤도를 그려가고 있는 그의 발자취에서 연구자의 사명감이 느껴진다. 

# 한의학연 국제협력사업 추진, 서남매를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동양의학 하면 중의학을 먼저 떠올리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세계 속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의학이 전통의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국제협력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수 · 홍보협력팀 선임연구원

서하림 · 홍보협력팀 연구원



## COOPERATION

### ● 외국어 실력 바탕으로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

세계 전통의학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정보교류와 협력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서남매’로 불리는 홍보협력팀 서명수 선임연구원과 서하림 연구원이 있다. 고교 선후배 사이로 능통한 중국어와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이 친남매 같아 주변에서 ‘서남매’라고 애칭을 지어 부르는 것.

2009년 한의학연에 입사한 서명수 연구원은 국제대학원에서 한·중전문통번역을 전공했다. 중국어와 영어를 두루 섭렵한 그는 2011년 한의학연의 숙원사업이었던 WHO전통의학협력센터 지정과 WHO자문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일조했다. 또 중국과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연례심포지엄을 정례화하고, 중국 북경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등의 주요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 5년간 국제협력 업무를 해오면서 힘들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 적도 많았지만, 입사초기와 비교하면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연구원의 국제협력 사업도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4월, 2014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한의학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도국 대상 한의학 ODA 지원사업을 추진해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외국어 실력과 성과에 대한 비결을 묻자 “카투사 군복무와 중국 현지 어학연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국가 사람들을 친근하고 편하게 대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 ● 업무에 보람, 멘토 역할 아버지께 고마움 느껴

서하림 연구원은 영문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하고 미국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 언어학을 부전공했다. 영어를 보다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아버지가 직장에서 국제협력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보람과 의미가 큰 것 같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친이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해 외국인과 자주 만나고 문화를 접하는데 익숙했다는 서하림 연구원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국제협력 분야 쪽으로 진로를 염두에 뒀다. 2012년에 합류한 그녀는 지난해 한의학연 개원 19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의 사회를 직접 맡기도 했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세세한 부분은 아버지가 챙겨주셔서 문제없이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서로의 일을 감수하며 보다 완벽을 기한다. 지난 8월에는 3주간 8개국 14명의 개발도상국 보건의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한의학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발전시켜왔는지 강의와 현장견학을 통해 개도국에 전통의학의 현대화 방안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41개국 212명이 참여했는데 매년 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남매는 10월 8일 한의학연 개원 20주년 기념 R&D컨퍼런스를 마치고, 11월에 있을 제4회 한·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한의학연의 국제협력 담당자로 만나게 된 이들은 “세계 전통의학의 중심에 한의학이 설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

## 한의학, 발효과학을 만나다

“ 발효과학은 기존 이론을 갖고 있는 물질에 발효과정을 더해 보다 나은 효능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과 발효과학의 접목은 고서나 임상을 통해 이미 알려진 물질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약효를 높이거나 새로운 효능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

김태수 · 한의신약개발그룹 책임연구원

### ● 기초과학 연구자, 한의학 연구에 매력을 느끼다

김태수 책임연구원은 전통적인 한방처방에 현대 발효과학(Bio-Converison: 생물전환기술)을 융합하여 약효가 더 강화된 물질을 개발하고, 과학적 효능검증과 안전성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제형의 신한방제제를 개발하는 연구과제의 실무를 맡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한의학 전공자는 아니다. 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기초과학분야 연구에 오랫동안 몸 담아왔다. 박사 후 과정은 미국의 연구원에서 7년 간 뼈와 파골세포 연구에 참여했다. 그런 그가 응용연구 쪽으로 눈을 돌렸다.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접목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면서 부터다. “기초과학 분야 연구만 했는데 문득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찾던 중에 한의학연구 공고를 보게 됐고 미국 생활을 접고 바로 귀국했습니다.”

2011년 한의학연에 합류한 그는 뼈와 파골세포 분야 연구에 몰입해 왔던 터라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에 주력했다. 김 연구원이 속한 연구팀은 황련, 황백, 치자, 황금 등 4가지 한약재가 함유된 황련해독탕이 오래전부터 불면증, 신경과민, 숙취, 두근거림 등 갱년기 증상개선에 사용된 점에 주목하고 다른 효능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그 결과 황련해독탕에 발효기술을 접목시켜 골다공증 치료용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fHRT’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이를 국제 특허 출원했다.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골밀도 52%, 골량 감소 31%까지 개선되는 효능과 기전을 입증하고, GLP 인증기관에 급성 경구독성시험, 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소핵시험을 의뢰해 기준을 모두 통과하며 안전성도 확보했다.

김 연구원은 “응용연구를 하고 싶다고 결심했지만 한의학의 성분에 대해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약재로 치료가 가능

## BIO-CONVERSION


할까 의심이 들기도 했던 게 사실인데 동물 실험 결과를 보고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며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기초과학 연구자였던 그에게 어려움은 없었을까. 그는 한의학 연구가 자신과 잘 맞는 것은 물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말한다. “세계적 트렌드도 융합연구로 가는 추세입니다. 한의학은 특성상 다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분야로 서로 다른 전공자들이 각자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함께 일할 수 있어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발효과학, 기존 물질에서 더 나은 효능 찾을 수 있어

발효는 미생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유익한 물질이 새로 발견되거나 제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요거트, 김치, 쌍화탕 등이 발효과정을 거친 대표 제품군이다.

한의학계도 기존 전통 한의학 기술에 발효기술을 더해 약효 발현이 강화된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개발 물질은 과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되고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신한방제제로 성급 다가가게 된다. 한의학연에서 개발한 항아토피, 항골다공증, 항암치료보조제로 활용이 가능한 후보물질도 전통 한약제제에 발효과학을 접목해 더 나은 효능을 발굴한 대표 사례다.

그는 “제약 물질 선별부터 동물실험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을 거쳤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되는 성과는 한 두 개지만 후보 물질 1,000종 이상을 스크린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쉽지 않은 연구과정을 설명했다. 또 “개발 물질이 제약화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항골다공증 후보물질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싶다”면서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힐링에 머물다  
글 · 사진 박은정

전라북도 부안 직소폭포와 채석강에 가다

산과 바다,  
무한의  
매력을  
가진 그 곳

이미지 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부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용하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무한한 평온을 안겨다주는, 저 소중한 아름다움을 끝끝내 지켜온 그 고마움이 있다"고... 유 교수가 국내 5대 명찰로 꼽으며 극찬한 '내소사' 이외에도 부안에는 해변지구인 '외변산'과 내륙 산악지구인 '내변산'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부안삼절의 하나라는 '직소폭포' 그리고 이태백이 떠오르는 '채석강'에서 이 가을 부안의 참 멋에 흠뻑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 불안삼절, ‘직소폭포’

이화우(梨花雨) 흘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 이매창 <이화우>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시조는 고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 저자는 바로 부안 출신의 기생이자 조선 시대 4대 여류시인 중 한사람인 이매창이다. 부안 출신의 또 다른 문인, 시인 신석정은 이매창을 일컬어 “박연폭포, 황진이, 서경덕이 송도삼절이라면 직소폭포, 매창, 윤희경은 부안삼절”이라고 칭찬 바 있다. 매창을 황진이에 비한 것이야 조선후기의 학자 홍만종을 비롯해 빈번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3대 명폭포라는 ‘박연폭포’와 견줄만한 ‘직소폭포’?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일지, 가을의 부안 여행은 바로 이러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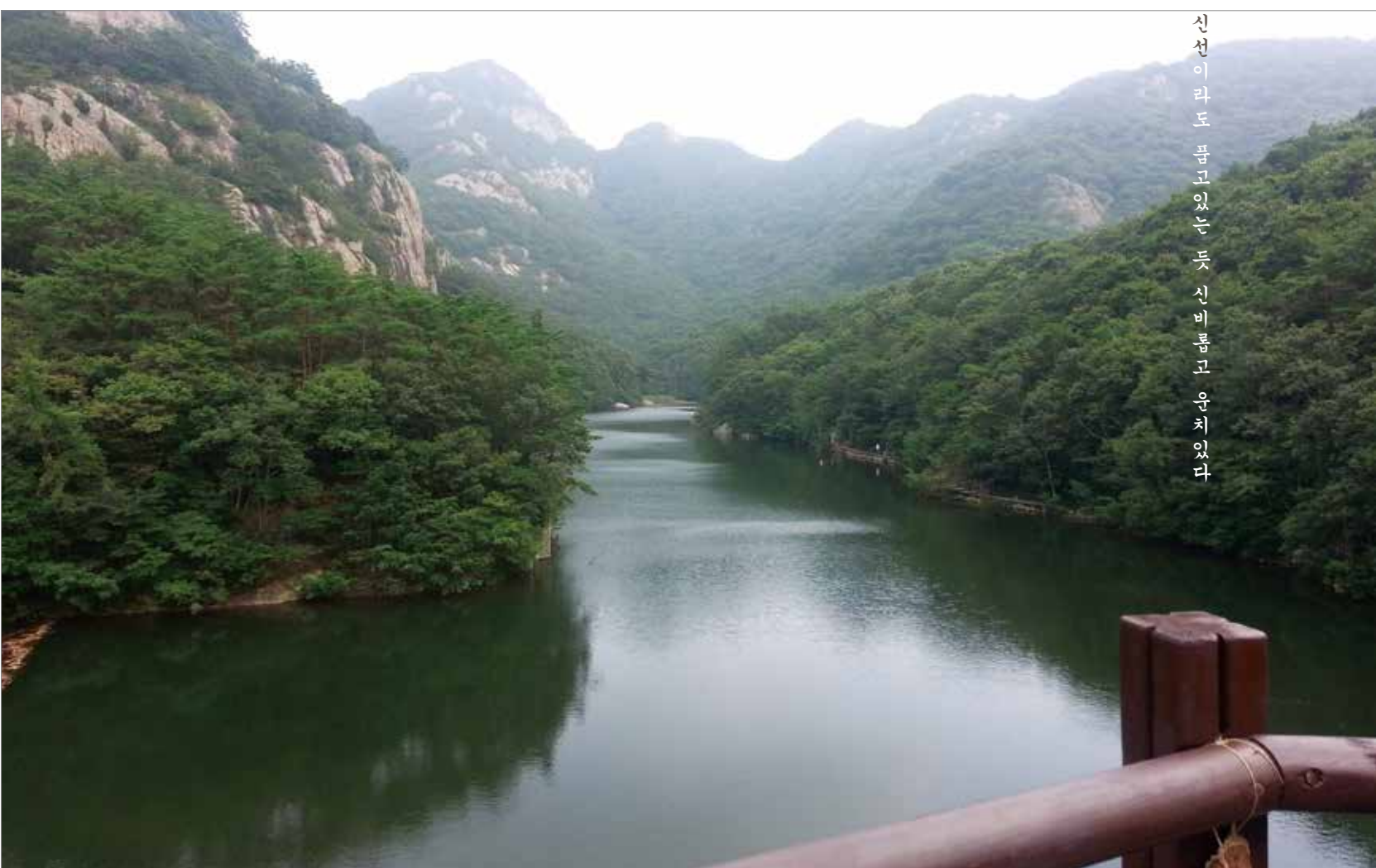
초가을의 이른 아침, 내변산탐방지원센터 아래 주차장은 생각보다 한산하다. 인근의 내소사보다는 유명세가 덜한 탓이리라. 출발 10분 만에 나타난 실상사는 신라 신문왕 9년(689), 초의선사가 창건해 한때 변산의 큰 절 6곳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전 당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고 지금은 복원된 미륵전, 삼성각보다 절터 앞 커다란 느티나무가 오히려 인상적이다.

제법 숲길다운 길이 시작되고, 실상사를 지나 첫 번째 다리를 건너면 곧이어 넓은 바위와 아름다운 소(沼)로 이루어진 ‘봉래구곡’이 나타난다. 원래 봉래구곡은 내변산의 빼어난 아홉 계곡을 말하는데, 제1곡 대소(大沼)부터 제9곡 암지(暗池)까지 서로 다른 이름과 경치가 있다. 현재의 봉래구곡이라 불리는 곳은 원래 제5곡인 봉래곡(蓬來曲)이지만, 아홉 계곡 중 가장 중심지인 덕분에 어느 때부터 인지 9곡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잠시간의 휴식 후 발걸음을 재촉하면, 탐방지원센터로부터 1.3km 쯤 되는 지점에 ‘자연보호한장탐 삼거리’가 나타난다. 이 갈림길에서 ‘월명암’, ‘낙조대’로 향하는 길 대신 곧장 ‘직소폭포’로 향하는 숲길로 접어든다. 그리고 200m 쯤 걷다 보면 어느새 커다란 산중호수 ‘직소보’가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다. 관음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직소보는 대소골에서 발원한 물이 직소폭포와 선녀탕을 거쳐 모인 것인데, 짙은 녹색을 띤 저수지 표면에 숲의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면서, 사뭇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감도는 듯하다. 누군가는 더러 이 직소보를 봉래구곡의 하이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절고 푸른소는 그속에 하얀 도포를 입은



신선이 라도 품고있는 듯 신비롭고 운치있다

라이트로 쏘기도 한다.

저수지 데크를 따라 조금 더 걷다가 고개를 넘으면 저 멀리 '직소폭포'가 풍경화처럼 보이는 직소폭포 전망대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광도 아름답지만 고지가 바로 앞. 초조해지는 마음을 다잡아 50m 가량을 더 내려가야 비로소 폭포 바로 앞에 설 수 있다. 높이 30m에 이르는 직소폭포는, 사람들이 이곳을 왜 부안의 절경이라고 하는지, 직접 보아야만 그 참의미를 느낄 수 있다. 육중한 암벽 단애 사이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이마의 땀방울을 깨끗이 말려주고,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절고 푸른 소는 그 속에 하얀 도포를 입은 신선이라도 품고 있는 듯 신비롭고 운치 있다. 근처의 노력바위에 앉아, 한 폭의 풍경화 같은 폭포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시락이라도 먹는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으리라.

### ●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채석강’

폭포구경을 마치고 부안 관광의 1번지라고 하는 채석강으로 향한다. 채석강은 그 이름 탓에 강(江)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부안 변산반도 맨 서쪽에 있는 해식절벽과 바닷가를 아울러 이르는 이름이다. 당나라의 시선(詩仙) 이태백이 배 위에서 술에 취한 채 강물 위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 죽었다는, 고사 속 그 채석강과 흡사해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전라우수영(全羅右水

營) 관하의 격포진(格浦鎭)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선캄브리아대의 화강암, 편마암을 기저층으로 약 7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쌓인 퇴적암이 바닷물에 침식되어 조성된 채석강. 그 모습이 마치 켜켜이 쌓여 있는 수만 권의 책인 듯도 하고, 얇은 층이 겹겹이 쌓여있는 패스트리 빵의 속살 같기도 하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 지형적 특성 덕분에 채석강은 한여름 휴가철에는 해수욕을 즐기 위한 관광지로, 그 밖의 계절에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나 사진,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여름과 가을, 그 어디쯤의 9월 채석강은 해변가에서 뒤편은 물놀이로 즐기는 젊은이들과 하얀 포말을 가르며 내달리는 모터보트의 엔진음으로 활기차다. 조개 줍기에 몰두한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정겹다.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찻집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도 제법 향기롭다. 채석강이라는 한 장의 멋진 풍경화는 그렇게 완성된다.

직소폭포와 채석강. 아름다운 부안의 풍광에서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어렵듯이 짐작해본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는다. 자연의 시간 앞에서 인간의 시간은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인지….



## 찾아가는 방법

직소폭포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 95-10 내변산탐방안내센터 부안 IC → 변산바다로(10.2km) → 신지길(1.0km) → 내변산로(12.5km)  
채석강 :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내변산로(6.1km) → 변산로(3.4km) → 격포로(1.5km)



## 또 다른 볼거리

### 1. 곰소항

곰소항 북쪽에는 8ha에 달하는 드넓은 염전이 펼쳐져 있다. 덕분에 곰소는 예로부터 소금생산지로도 유명하다. 근해에서 나는 신선한 어패류를 즉석에서 회로 맛볼 수 있는 횡집 단지와 상싱한 재료로 각종 젓갈을 생산하는 대규모 젓갈단지도 조성돼 있어 주말이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 2. 내소사

백제 무왕 34년(633년)에 해구두타에 의해 창건된 내소사는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이어지는 600m의 전나무 숲길로 유명하다. 또한 대웅보전에 새겨진 국화 창살무늬는 소박하고 정갈한 아름다움으로 감탄을 자아낼 만하다.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T. 063) 583-7281

### 3. 새만금방조제

부안에서 군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는 그 길이가 33.47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이다. 공사 당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돼 찬반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부안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새만금방조제의 간척지 조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이 0.4% 늘었다고 한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서두터 산 28-4

## 부안의 먹음거리

### 백합죽

다른 조개에 비해 고급 조개에 속하는 백합조개는 조갯살이 푸짐하고 탱탱한 것이 특징이다. 구이나 파전, 탕,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맛을 즐길 수 있지만, 부안의 별미 ‘백합죽’은 반드시 한번쯤 맛볼 만하다. 속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백합 특유의 향과 감칠맛이 일품이기 때문이다.

계화회관 : 부안군 행안면 신거리 211-2  
T. 063) 584-3075

이미지 제공 : 부안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소사

# 한의학 상식 아는 만큼 보인다.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사실처럼 전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한의학의 역사는 한반도의 태동과 같이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명의 허준, 이제마를 배출하면서 한의학은 민족의학의 중심이 돼 왔다. 그러나 일본의 강점과 민족정신 말살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의사 자격은 폐지되고 뒤늦게 도입된 서양의학이 주류를 이뤘다. 이후 한의학은 40여 년 이상 단절됐고 1950년이 되어서야 한의사 자격이 복원됐다. 떨어진 한의학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한의학 정보를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사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한의학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렸다.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잘못된 한의학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자.

01

## ● 침은 일반인도 배우면 놓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선 침과 뜸 치료는 본래 한의학의 주요 치료수단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시기 일본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의 침술업자와 구술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침은 아무나 놓을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린 것이다. 하지만 침과 뜸을 시술하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사전에 해부학을 비롯해 경락경혈학, 병리학, 생리학을 공부해야만 시술이 가능하다. 이를 무시하고 침과 뜸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무면허 시술자에게 받는 침과 뜸 치료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것과 같으니 조심해야 한다.

중국산  
한약재는  
안 좋다?



## ● 중국산 한약재는 안 먹는 게 낫다?

그렇지 않다. 당귀, 황기처럼 국산 약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감초는 국내에서 재배가 잘 안 돼 예전부터 중국산을 수입해 사용했다. 최근 몇몇 중국산 약재들이 질적인 문제로 도마에 오르면서 중국산 약재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민감하다. 하지만 약재의 종류는 다양하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전통의학이 발달해 같이 사용하는 약재도 있고, 지질, 기후 등 재배 환경에 따라 더 나은 약효를 가진 약재도 있다. 즉, 약재마다 효능이 우수한 산지가 다르다는 말이다. 때문에 각각의 약재에 맞는 토양과 기후에서 자란 것이 최상의 약효를 가진다. 위에서 언급된 감초의 경우 중국 양의 지역의 자연산 감초가 최상품으로 손꼽힌다. 그만큼 가격대도 높다. 강황, 계피, 정향 등 아열대 지방에서 나는 약재도 있다. 이 약재들은 동남아와 중국 등 아열대 지역에서 자란 것이 약효가 뛰어나 그 지역의 약재를 수입해서 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약효가 미미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약재를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재 유통 및 관리 등에서 엄격한 심사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기준을 통해 들어온 약재로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02

한약 먹으면  
살찐다?



03

## ● 한약 먹으면 살찐다고?

흔히들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알려진 상식이다. 우선 한약재의 성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식물의 잎, 뿌리 등으로 칼로리가 높지 않다. 그런데 평소 비위가 약했던 사람이 한약을 복용하면 소화기의 순환이 원활해진다. 당연히 식욕이 좋아지게 되는 것. 한약 자체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복으로 왕성해진 식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살이 찐다는 의미다.

혹자는 암환자가 한약을 복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또한 잘못된 알려진 상식이다. 보통 성인은 매일 2조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가운데 몇 백 개의 세포는 정상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증식하는 암세포가 되기도 한다. 우리 몸의 저항능력과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의학적 치료법은 몸의 저항능력과 면역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 항암치료를 받을 때 덜 고통스럽고 예후도 좋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논문도 속속 나오고 있다.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은 상호 보완이라 할 수 있다. 질환부위를 집중 치료하는 양의와 몸 전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한의를 골고루 활용한 치료가 암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최근 몇몇 중국산 약재들이 질적인 문제로 도마에 오르면서 중국산 약재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민감하다. 하지만 약재의 종류는 다양하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전통의학이 발달해 같이 사용하는 약재도 있고, 지질, 기후 등 재배 환경에 따라 더 나은 약효를 가진 약재도 있다. 즉, 약재마다 효능이 우수한 산지가 다르다는 말이다.

## ● 교통사고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받는 교통사고 환자의 대부분의 치료가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이 됐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부담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대상도 다양하다. 침과 뜸, 부항부터 추나요법과 약침요법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근저주파요법이나 중주파, 초음파, 초단파요법, 레이저 치료도 가능하고 도인운동요법, 경근견인요법을 비롯해 침약까지도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니 교통사고 후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양의와 한의를 골고루 활용한 진료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04

# 천연염색

## 자연은 담은 선조들의 색

지금처럼 화학염료가 발달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연 속에서 채취한 꽃, 나무, 풀, 흙 등을 염료로 이용하여 다양한 색을 만들어 냈다. 봄과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청명한 하늘빛까지. 선조들이 사용한 전통염색법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자연이 지닌 본래의 색채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며 또 건강하게 만든다. 색이 삶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자연에서 염료를 얻고, 자연의 색채를 담아낸 선조들의 전통염색은 자연의 심성을 고스란히 표현해낸다. 자연과의 공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요즘, 화학 매염이나 화학 염색기법이 아닌 선조들의 전통염색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色



이미지 제공 : 문화재청



### ● 전통을 담고 있는 자연의 빛깔

우리나라의 천연염색에 대한 기록은 『신당서(新唐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책에는 “고구려왕은 오색 무늬의 옷을 입고, 흰 나직으로 관을 만들며 가죽 혁대에는 금단추를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와 신라 역시 왕, 신하, 평민의 복식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백제의 경우 왕은 보라색의 넓은 포를 입고 청색의 무늬를 두어 짙 바지를 입었다. 골품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의복의 색을 다르게 했던 신라는 11명의 여인이 염색에 종사하는 염궁(染宮)이라는 관청을 두어 염색기술을 발전시켰다. 신라는 직위에 따라 자색, 비색, 청색, 황색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자두, 꼭두서니, 쪽, 황벽, 울금 등의 식물염료가 사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삼국이 모두 다양한 색을 통해 신분을 표현했던 것만 보아도 선조들의 염색 기술 수준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문종때에는 염료를 만들고 염색을 하는 일을 맡아보는 ‘도염서’라는 관청이 만들어졌다. 고려사에 보면 홍화, 자황 등 식물성 염료의 명칭이 거론되어지는데, 이를 통해 식물을 이용한 천연염색이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의 자초 염색은 중국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기술이 우수하였는데, 이는 좋은 자초 품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 송나라 손목이 쓴 『계림지』에 “고려는 염색을 잘하는데 홍색과 자색이 더욱 묘하고, 자초 뿌리 굵은 것은 모란 뿌리만큼 굵고 이것의 즙을 짜서 비단에 물들이면 매우 선명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각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품을 만드는 경공장(京工匠)에서 염색제품 전문부서를 두고 생산했다. 이 당시에는 황색을 비롯한 자색, 홍색 등 착용해서는 안 되는 금제복식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의 경우

염색하지 않은 백의를 많이 입었다. 또한 염색을 위해 사용하는 염료의 대부분이 천연제품으로 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값이 비싼 중상위계층에서 염색된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민족이 백의를 즐겨 입는 관습이 염료를 구하기 어렵고, 복색에 대한 금제복식이 많았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 ●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천연염색

선조들이 염색에 사용한 재료들은 대부분 약초로 쓰이거나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이어서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효과를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주색을 내는데 사용했던 지치는 피를 멎게 하거나 화상이나 동상, 물집 등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 또한 붉은 색을 내는 잇꽃의 경우 배가 아프거나 혈관이 굳을 때 효능이 있다. 또한 붉은 빛이 도는 노란색을 내는데 사용한 치자나무 열매는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리는데 사용된다. 특히 선명한 하늘빛을 내어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염료 ‘쪽’의 경우 해독과 해열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자연이 지닌 본래의 색채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며 또 건강하게 만든다. 색이 삶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자연에서 염료를 얻고, 자연의 색채를 담아낸 선조들의 전통염색은 자연의 심성을 고스란히 표현해낸다. 자연과의 공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요즘, 화학 매염이나 화학 염색기법이 아닌 선조들의 전통염색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 전통염색 연구원이 생겨났고, 직접 천연염색을 해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비록 지금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전수되어지고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전통염색이 대중화되어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 가을, 피부에 수분을 주세요


## ● 클렌징과 각질 제거로 시작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피부 상태가 깨끗하지 않다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피부 좋기로 소문난 연예인과 피부전문가들은 피부 관리의 첫 번째로 꼼꼼한 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꼽는다. 클렌징할 때는 뜨겁거나, 차가운 물보다는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이용한다. 그다음 피부에 맞는 클렌징 제품으로 거품을 충분히 내어 얼굴을 문지른 뒤 깨끗하게 씻어내면 된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과 겨울에는 평소보다 각질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각질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 피부 타입에 맞게 지성 피부는 1주일에 한 번, 건성 피부는 2주일에 한 번 각질을 제거한다.

## ● 촉촉한 피부, 해답은 수분

뽀송뽀송한 기초 피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할 때다. 그중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수분. 가을에 겪는 건조함으로 피부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 잔주름과 피부 탄력 저하 등 피부 노화 증상이 일어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보습팩 하는 날을 정해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수분만 잡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공기 중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수분막을 형성하는 유분도 챙겨야 한다. 유분은 코코아 버터와 호호바 오일, 미네랄 오일 성분에 함유되어 있다. 피부 속 수분을 채웠다면 몸속에도 수분을 공급하자. 하루에 1~2ℓ의 물을 수시로 마시면 피부에 수분이 공급되며, 부드럽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 ● 이왕이면, 천연 화장품으로

유기농이 몸에 좋은 것처럼 피부의 근본적인 건강에는 천연화장품이 좋다. 자연에서 자란 천연물을 재료로 한만큼 천연 화장품은 다른 어떤 기능성 화장품만큼이나 피부를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데 효능이 뛰어나다. 특히 집에서 직접 화장품을 만들면 각종 화학 물질과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천연화장품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오래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냉장보관 해야 한다. 특히 천연 팩은 만든 후 냉장보관 한 상태에서 이틀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되도록 한 번 쓸 양만큼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청명한 가을은 피부의 회복기.  
여름 동안 더위와 자외선,  
땀으로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  
할 때다. 하지만 차고 건조한  
가을바람은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 각질과 주름,  
푸석거림을 일으킨다. 그만큼  
가을에는 세심하고,  
간간한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공기 중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수분막을 형성하는 유분도 챙겨야 한다. 유분은 코코아 버터와 호호바 오일, 미네랄 오일 성분에 함유되어 있다. 피부 속 수분을 채웠다면 몸속에도 수분을 공급하자. 하루에 1~2ℓ의 물을 수시로 마시면 피부에 수분이 공급되며, 부드럽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만드는  
천연 화장품



## Cleansing Oil 클렌징오일

클렌징오일은 집에서 손쉽게 만드는 천연화장품 중 하나. 피부 유형에 맞는 오일을 선택해 혼합하면 된다. 오일의 미끌미끌한 느낌이 싫다면 오일과 워터류를 유화시켜주는 올리브 리퀴드를, 조금 더 오래 쓰고 싶다면 천연방부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E를 첨가하면 된다.

### 1. 각질제거에 탁월한 살구씨+흑설탕 오일

흑설탕과 살구씨는 각질 제거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클렌징 외에 마사지용으로 사용해도 좋다.

**재료 :** 살구씨 오일 50g + 흑설탕 15g

#### ◆ 만드는 법

1. 살구씨 오일에 흑설탕을 섞는다.
2. 소독한 용기에 담아 두고 조금씩 덜어서 쓴다.

## Natural SOAP 천연비누

천연비누는 오일에 비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들어가는 재료도 많고, 방법도 복잡하다. 하지만 저온법 녹여붓기 방법을 이용하면 한결 간단하게 비누를 만들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누베이스를 녹여서 만드는 저온법 녹여붓기는 간편하게 좋은 비누를 만들 수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 2. 달달한 초콜릿 향에 보습까지 카카오 비누

카카오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피부의 산화를 억제하며 피부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게다가 섬유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 보습효과에도 탁월하다.

**재료 :** 투명 비누베이스 500g, 카카오가루 10g, 글리세린 20g, 티타늄 디옥사이드 10g, 초콜릿 프래그런스 오일 3mL, 민트 초콜릿 프래그런스 오일 3mL

#### ◆ 만드는 법

1. 비누베이스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중탕기에 넣어 완전히 녹인다. 이때 온도는 75℃가 넘지 않도록 한다.
2. 나머지 재료를 넣고 잘 섞는다.
3. 가볍게 저어 넣은 재료들이 완전히 섞이면 비누 틀에 붓는다.
4. 비누가 완전히 굳으면 조심스럽게 틀에서 꺼낸다.

## Natural PACK 천연 팩

재료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팩.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만큼 트러블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 하지만 혹시 모를 트러블을 위해 사용 전 테스트 하는 게 좋다. 얼굴에 바르기 전 팔 안쪽이나 귀 뒤 등 물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발라서 상태를 본 후 얼굴에 사용하도록 하자.

#### TIP. 천연 팩할 때 기억하세요!

천연 팩을 만들 때 재료의 입자를 최대한 곱게 만들자. 그래야 재료의 천연 성분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된다.

팩은 자기 전에 하는 게 피부 재생에 가장 좋다. 특히 산도가 높은 레몬, 오렌지 등으로 팩을 한 후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열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천연 팩을 하는 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천연 팩은 15분 이상 지나면 재료의 성분이 산화 되기 때문에 팩하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팩을 할 때는 마스크 시트를 이용하자. 마스크 팩을 사용하면 내용물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떼어낼 때도 편리하다. 모공 속에 찌꺼기가 남을 염려도 없어 안심할 수 있다.



### 3. 피부의 수분력을 높이는 오트밀 팩

오트밀은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 여기에 꿀과 우유를 넣으면 매끄러움까지 얻을 수 있다. 우유 대신 두유나 쌀뜨물을 넣어도 된다.

**재료 :** 오트밀 가루 1큰술, 우유 2큰술, 꿀 1작은술, 밀가루 1작은술

#### ◆ 만드는 법

1. 우유에 오트밀 가루를 넣고 섞는다.
2. 1에 꿀과 밀가루를 넣고 되직하게 섞는다.
3. 팩제를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바른 뒤 15분 후 깨끗하게 씻어낸다.

### 4. 영양과 윤기를 한번에 바나나 팩

바나나 팩은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보습작용이 뛰어나 거칠어지고 푸석해진 피부, 주름지고 처진 피부에 효과적이다. 간단하게 바나나와 밀가루, 꿀로만 팩을 만들어 사용해도 된다.

**재료 :** 바나나 1/2개, 우유 1큰술, 꿀 1작은술, 그레이프시드 오일

#### ◆ 만드는 법

1. 바나나 껍질을 벗긴 뒤 곱게 으갠다.
2. 1에 우유, 꿀, 그레이프시드 오일을 넣고 잘 섞는다.
3. 팩제를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바른 뒤 15분 후 깨끗하게 씻어낸다.

#### 참 고

천연화장품 만들기  
안미현|텍서스BOOKS

우리 아이를 위한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조영림|살림

입소문 천연팩  
박다원|삼성출판사



## KIOM 낙도(落島)사랑 한방의료봉사

1사 1촌 맺은 삼시도에서 한방진료, 교육기부 활동 가져



한의학연 봉사동아리 '한의사랑'과 연구원 임직원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이 지난 7월 충남 보령시 삼시도를 찾았다.

2010년부터 매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落島)를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는 한의학연은 그동안 충남 삼시도, 인천 불음도, 충남 호도 등을 방문해 섬 주민의 건강관리를 도와 왔다.

올해는 의료봉사활동을 계기로 작년 9월 한의학연과 1社 1村 자매결연을 맺은 삼시도를 찾아 이틀간 의료봉사활동을 가졌다.

현재 50여 명이 활동 중인 봉사동아리 '한의사랑'은 낙도의료봉사를 비롯해 겨울철 독거노인 대상 방풍지 공사, 새터민 가족 초청 한방진료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삼시도는 충남에서 안면도, 원산도에 이어 3번째로 큰 섬으로 200여 가구에 500여 명의 주민이 어업을 주업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65세~80세 고령 인구가 100명 정도 되는데 반해 보건 진료소가 1개뿐이어서 의료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봉사단은 먼저 삼시도 마을회관을 임시 진료실로 삼아 주변과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준비해온 의료장비와 한약도 정비하고 접수대, 진료실, 약국까지 설치한 후 아침 일찍 문을 열었다. 아침부터 많은 주민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해 금세 대기인원으로 마을회관이 꽉 찼다.

진료실을 찾은 어르신들 다수가 고혈압,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평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의사들은 진단을 통해 꼼꼼히 건강 상태를 살피고 침, 뜸, 부항 등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진료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고, 주민 약 100여 명이 의료상담과 진료를 받았다.


올해는 한방진료와 함께 한의학 강연과 체험프로그램 등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도 진행됐다. 봉사단은 삼시도 내 오천초등학교 분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에 대한 기초상식을 강연하고 한의학의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오행(五行)게임도 진행했다. 아이들이 기대 이상으로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 50여 명이 활동 중인 봉사동아리 '한의사랑'은 낙도의료봉사를 비롯해 겨울철 독거노인 대상 방풍지 공사, 새터민 가족 초청 한방진료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의학연은 다문화가정, 특수교육아동, 소년원 수감생, 소년소녀가장 등 교육과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이웃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체험! 약용식물의 현장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





“평소에 모르게 지나쳤던 풀들이 약초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돼서 뿌듯해요.” (춘천교대 부설초5 김승재)	‘애기똥풀, 땀땀이덩굴, 머느리배꼽, 가죽나무, 미국자리공, 명석달기..’
“산에 가서 약초에 대해 많이 알게 돼서 좋았어요. 약초인지 몰랐던 식물들이 약초라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김천 서부초5 박슬비)	탐사대원들은 한약자원그룹 최고야 박사, 강영민 박사, 침구경력연구그룹 김민경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등산로 길 약용식물에 대해 하나씩 배웠다. 더위와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아이들은 씩씩하게 산에 오르며 직접 풀잎을 만지고, 향기를 맡아봤다. 여러 식물들의 이름과 유래, 설화이야기, 약의 효능도 배웠다. 평소 궁금했던 한의학 지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들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하다.	
‘2014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가 8월 12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최됐다. 2012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은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는 전문가의 강연과 돌레길 탐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약용식물에 대해 배우는 현장 체험학습프로그램이다.	1시간 30분에 걸친 탐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흔하고 당연해보였던 식물, 자연이 이제 조금 특별해 보였을까? 몸은 지쳤지만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올해는 사전 신청을 마친 초등학교와 학부모 총60명이 연구원 대강당에 빠짐없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한의학과 약용식물에 대한 기초강좌와 전시관 투어를 통해 기본 지식을 쌓은 뒤 현장 탐사를 위해 화봉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KIOM 어린이 본초탐사대’는 매년 여름방학에 실시되며, 홈페이지(www.kiom.re.kr) 사전 접수를 통해 초등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전국 어린이 한의학 퀴즈대회 ‘찾아라! 어린이 허준’




전국 초등학교 한의학 퀴즈대회 ‘제3회 찾아라! 어린이 허준’이 9월 27일(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찾아라! 어린이 허준’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어린이들이 좀 더 재밌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학연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대상 참여프로그램이다.	마지막 대결답게 점수가 엇치락뒤치락하며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가운데 황유정(대전 대덕초6년) 학생이 마지막 문제를 맞히며 최후의 1인에 올랐다. 황유정 학생은 ‘어린이 허준’ 문제 3개 중 2개를 맞히면서 미래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영예의 ‘제3대 어린이 허준’에 등극했다.
올해는 전국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약 400여 명이 온라인 사전 접수를 마치고 한의학연 행사장에 모였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한의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향약표본관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공부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하다. 첫 번째 예선 라운드느 한의학연 운동장에서 백일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의학 관련 OX퀴즈, 객관식, 주관식 총 20문제를 푼 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본선 진출자 49명이 선발됐다.	금상에는 황준호(대전 삼천초6년) 학생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은상에는 장재용(강원도 원주삼육초5년) 학생이 대전시 교육감상을, 동상에는 김선희(대전 배울초6년), 윤성식(대전 배울초3년) 학생이 각각 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과 대한한 의사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태블릿PC, 미러리스카메라, 가정용게임기, 문하도서세트 등의 부상도 수여됐다.
본선 1라운드부터는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치러졌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에 탈락자가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학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패자부활전을 거치며 본선 2라운드 진출자 5명이 정해졌다. 2라운드에서는 최후의 1인 자리를 놓고 5명의 제시어 문제풀기 대결이 진행됐다.	2012년 ‘제1대 어린이 허준’ 탄생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찾아라! 어린이 허준’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대전, 서울, 부산, 원주, 포항,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관련 내용 및 접수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의학, 세계무대 가능성 찾다! 2014 'KIOM 글로벌원정대' 성과보고회

“스포츠 한의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밤새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한의학의 미래를 꿈꿨어요. 나 자신이 어떤 한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어요.” (대상 'Med for Sports'팀 김도영 팀장)	적용방안을 탐구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우수상과 장학금 150만 원을 수상했다.
올해 3월 원정대 모집을 시작으로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3팀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해외 연수를 마치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마지막 자리에 섰다.	'let EAT go'팀(가천대 한의학 본과2년 김동혁, 남주연, 가천대 한의학 본과1년 한정훈,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2년 양승구)은 섭식장애를 주제로 미국의 관련 연구기관과 치료센터, 병원, 임상시스템 등을 탐방 후 통합 의학적 섭식 센터 모델을 제시하여 장려상과 장학금 50만 원을 수상했다.
9월 4일 열린 2104 KIOM 글로벌원정대 성과보고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대상을 수상한 'Med for Sports'팀(경희대 한의학 본과2년 김도영, 박사운, 예과2년 김명선, 이민정)은 '한의학만의 특성을 살려 예방, 치료, 재활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스포츠 손상 치료 시스템 연구'를 주제로 미국을 탐방했다. 이들은 관련 연구·교육·임상기관들을 방문하며 세계무대에서 스포츠 한의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방스포츠의학센터를 제시하여 대상과 장학금 300만 원을 수상했다.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학(원)생들의 세계 전통의학 연구 기관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KIOM 글로벌원정대가 8번째 해외 연수를 마쳤다.  '과연 내가 학생 수준에서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 망설여진다면 기본 자격을 갖춘 셈이다. 대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젊음, 열정,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험과 한의학의 미래를 밝혀줄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Network Won'팀(원광대 한의학 본과2년 류호선, 강진, 박주현, 서울대 중앙생물학 박사과정 최안나)은 '시스템생물학을 통한 증(證)의 근거 구축'을 주제로 중국을 탐방했다. 이들은 최근 유럽, 중국 등에서 시스템생물학과 전통 의학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 가능성과 한의학의	원정대는 매년 3월 모집을 시작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에 대해 총3팀을 선발하고, 총 3,200만 원의 연수지원금과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한의학연 연구자가 멘토가 되어 완성도 있는 해외 탐방을 돕는다.   2015년 글로벌원정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 cafe.daum.net/kiomglobal



## 한의대생, 한의학 R&D 프로세스 체험 제1회 'KIOM 리서치 캠프'

“현재 수술 후 치통에 대한 치료로는 이부프로펜, COX-2 inhibitor 등의 진통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우리 팀은 통증 강도, 통증완화지표를 이용해 치통에 대한 양약치료와 침 치료의 효과를 비교 분석해 환자의 진료방법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를 기획했다.”(대상 침구정락연구팀)	학생들은 총6개 연구 분야별(한의의료기술연구, 의공학기술개발, 침구정락연구, 한약자원, 한의신약개발, 한약방제연구)로 한의학연 연구자의 멘토링을 받으며 연구 아이디어 발굴·기획, 아이디어 구체화, 기획안 작성, 과제별 발표 등 한의학 R&D 프로세스를 체험했다.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습(濕)에 쉽게 노출되어 이와 관련된 질병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습을 진단하는 기구의 개발은 미진한 상태이다. 습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에서 습의 정량 측정이 가능하다면 한의학적 진단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우수상 의공학기술개발팀)	특히 연구의 체계적인 설계방법에 대한 이준혁 한의학정책 연구센터 팀장의 특강, 미국 하버드 의대 Vitaly Napadow 박사의 특강 등 학교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한의계 전문가와 리더들의 강연과 대화는 연구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줬다.
연구개발(R&D)에 대한 갈증과 궁금증이 폭발이라도 한 것일까. 전국의 한의과대 학생들의 토론 열기는 뜨거웠다. 멘토의 조언에 따라 학생들은 토론 내내 각자의 경험과 의견,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연구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발산했다.	한단계 한단계 연구에 접근한 덕분일까. 학생들은 3일째 조별 발표에서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료시장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등 꼼꼼하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연구계획으로 미개척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자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의학연이 7월 16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KIOM 리서치 캠프에 12개 한의과대학(원) 본과 1~4학년 학생 68명이 참석했다.	한의학연은 학부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 'KIOM URP', 해외 우수연구 기관 탐방 'KIOM 글로벌원정대', 연구현장 투어 'KIOM올래' 등과 함께 'KIOM 리서치 캠프'를 통해 한의계 미래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피부 노화 모델에서의 경구투여 후 주름감소 효과 비교



채성욱 | 한의신약개발그룹 선임연구원

## 콩과 식물에서 피부 노화 개선 천연물질 개발

한의학연 채성욱 박사팀이 콩과(科) 식물에서 피부 노화에 효과가 탁월한 피부 노화 억제 천연물 소재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콩과 식물 추출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피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름의 길이가 27.6% 개선, 표피층의 두께가 55.6% 감소했으며, 주름 유발 효소의 발현량이 46.5% 감소했다. 또한, 연구팀은 피부조직을 적출한 후 피부 내 콜라겐 손상과 관련 있는 단백질의 변화를 통해서 피부 노화 억제 기전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해당 피부 노화 억제 소재를 선급실시료 2억 6천만 원(경상실시료 순매출액 3.3%)에 ㈜휴온스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피부 노화 방지제로 외용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했지만, 이번 연구성과로 뉴트리코스메틱(피부에 도움을 주는 식품소재)에 의한 피부건강 증진효능을 규명해 피부건강관련 기능성 식품 소재나 피부 질환 치료제로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개도국 보건의료 전문가 한의학 연수

한의학연은 8월 18일부터 약 3주간 세계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인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Modernization of Tradition Medicine)'을 실시했다. 한의학연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이번 연수프로그램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정부부처, 국립보건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전문가 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주간 한의학 개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사상체질 의학, 침구경락 등 한의학 기초 이론과 한의학 R&D, 인프라 현황, 표준화 등에 대한 강연과 현장탐방을 통해 한의학 전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001년부터 시작되어 온 한의학 연수프로그램은 지난 13년간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등 세계 41개국 212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 수료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모습

## 한의학 세계화 비전 선포식

한의학연은 9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의학 세계 진출의 결의를 가지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한의학 세계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및 ISO 국제표준화 제정 등 전통의학 관련 국제질서 변화와 세계전통의학시장의 확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학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한의계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관계자, 관련기관 및 단체, 학계, 한의사, 대학생 등 범한의계 구성원의 참여로 진행됐다. 한의학연은 '한의학 세계 전통의학의 대표 브랜드로'라는 비전과 '한의학 세계 화기반 확립 및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의학의 고유가치 극대화, 한의학의 해외 진출 확대, 한의학 세계화 인프라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이번에 선포된 비전은 향후 한의학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으로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한의학 세계화 실행전략 수립,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 종합 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 한의학연,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UNICEF 인증

한의학연은 9월 6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주관의 '세계 모유수유 주간' 행사에서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선정됐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06년부터 직장여성들의 모유수유를 돕기 위한 범사회적 모유수유 권장 운동인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Mother Friendly Workplace)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통해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의학연은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휴가·휴직제도를 장려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실(Angel Mom), 원내 여성협의체 및 여성만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의학연은 모유수유 시설인 모성보호실과 함께 시설 내 유축기 및 냉장고 등을 완비하여 여성들의 모유수유를 지원하고 있다.



송미영 선임연구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기관 대표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 KIOM 우체통

>> <한의학이야기>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매거진입니다. 이번호에 대한 소감이나 바라는 점, 또는 <한의학이야기>와 함께 촬영한 사진,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이번호 마감은 12월 15일입니다. ☎ 042-868-9274

독자의견



- 1 강경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비만 기사 유익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이어트 열풍인데 녀도 나도 살 빼는 것이 유행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고 운동량이 적은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개된 기술처럼 건강하게 지방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
- 2 윤종필(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한의학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뇌신경과 로봇 공학은 오히려 서양 의학과 가까운 것 같은데 한의학과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침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3 김명민(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학생 때부터 한의원이 친숙해서 몸이 안 좋을 때면 한의원을 이용합니다. 누구는 효과가 없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치료가 잘 되고 한약도 몸에 잘 받습니다. 침이나 한약이 잘 맞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하고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모.방.법

1. QR코드로 응모하기
2. E-mail로 응모하기  
kiomevent@kiom.re.kr

퀴즈



- 1** 한의학연이 최근 개발한 '내손안에 0000'앱은 우리 민족 최고 의사이자 2009년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것을 스마트폰 앱으로 만든 것이다. 0000은?
- 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맨 서쪽에 있는 해식절벽 바닷가. 빼어난 경관 때문에 사진 촬영이나 영화촬영지로도 유명하며 명승 제13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바닷물에 침식되어 퇴적한 절벽이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 한 것이 특징인 이곳은?

<지난 호 정답> 지난 호 퀴즈 정답은 <비만, 침>입니다.  
정답자는 박민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주신희(서울시 강남구 개포로)입니다.



##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